

■ 와라스와 융가이 - 페루의 툼베스 여행 (5)

이 호 인

와라스(Huáraz)

다양한 문화 유적과 해변까지 갖추고 있는 페루 제3의 도시 트루히요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그다지 큰 인상을 주지 못한 도시였다. 이제 이번 페루 북부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와라스만을 남겨 두고 있었다. 이틀간 내리 밤 버스에서 잔뜩인지 트루히요에서 투어를 마치고 시내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다. 그래도 리마에 있을 때 많은 현지 친구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던 와라스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 트루히요에서 지체하고 싶진 않았다. 결국 삼일 연속 버스에서 잠을 자는 강행군을 감행하기로 했다. 버스에 타자마자 졸음이 몰려와 바로 잠이 들었다.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내 뒷자리에 있던 아주머니와 딸로 보이는 여자 둘이서 나를 흔들며 깨우고 말을 걸어왔다. 외국인인 버스에서 가방을 그렇게 허술하게 두고서 잠들면 위험하다는 얘기다. 단잠에서 깨어난 것이 못내 억울해서 대충 알았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는 다시 잠들려는 찰라, 아주머니는 또 다시 날 깨웠다. 그리고 나서 살짝 내 옆자리를 쳐다보았다. 옆 자리에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현지인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가 자꾸 날 깨우는 것도 그렇고, 옆자리를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왠지 낯이 이상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은 채 다시 눈을 붙였다. 그

렇게 다시 잠들고 와라스에 도착해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는 다시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외국인이 이런 데서 그렇게 방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계속 이토록 민감하게 나에게 안전을 강조하는지 물어보니, 아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옆자리의 남자가 내 자리 위의 선반에 올려놓은 내 가방을 괜히 몇 번 건드려 보면서 자고 있던 내 눈치를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제야 나는 아주머니에게 신경 써 주고 깨워 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나는 안면도 없는 외국인인데다 내 옆자리 남자들이 불량배라면 괜히 끼어든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려는 나를 몇 번이고 흔들어서 깨워 준 아주머니가 참으로 고마웠다. 계속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내게 아주머니는 간단히 내 정보를 묻더니, 숙소는 어디로 정할 거냐고 물었다. 아직 안 정했다고 하니, 이곳은 리마하고는 다르다면서 외국인은 특히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직접 안전한 숙소를 추천해 주겠다고 말했다. 과잉친절에 괜한 부담감이 생겨서 괜찮다고 잘 알아서 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를 이끌고 택시 정류장으로 갔다. 혹시나 자신을 오해하지 말라며 페루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보여 주고는 옆의 여자애가 자기 딸이라면서 딸 앞에서 나쁜 짓 절대 안 한다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 번호까지 적어 주었다. 그러더니 직접 택시를 잡아서 택시 운전 기사와 택시비를 조정하고, 자기가 추천하는 호텔로 가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타라고 하였다. 아주머니가 전혀 악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고, 적어도 인종과 국가를 떠나서 어머니가 딸 앞에서 딸을 거론하면서 사기 칠 것 같지 않아서 한번 믿어 보고 택시에 올랐다. 사실 굉장히 치밀한 사기를 공모하는 몇몇 현지인은 이렇듯 외국인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로 이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아주머니의 진정성에 믿음이 갔기 때문에 택시에 탄 것이다.

택시는 아무런 문제없이 아주머니가 일러 준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은 다소 비싸 보였지만, 정말 근처의 호텔 중에서는 치안이 가장 확실한 호텔 같았다. 하지만 단순히 치안이 걱정된다고 푼타 살에 머물 때를 제외하고는 비싼 숙소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와라스까지 와서 갑자기 부담이 되는 호텔에 머물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상했다. 치클라요에서 버스표를 살 때에는 한 시간 가량을 수다 떨던 버스표 판매원 아저씨가 내 여권을 보고, 말이 서툰 페루 현지인인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로 현지인과 흡사한 외모를 자랑하는 나였다. 아주머니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근처에 조금 더 싸 보이는 숙소에 들어갔다. 삼 일간 버스에서 자면서 왔기 때문에 온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일단 샤워를 하고 조금 눈을 붙이기로 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아까 그 아주머니였다. 택시에 타기 전 전화번호를 교환했기 때문에 내 번호를 알게 된 것이다. 자신이 일러준 숙소에 잘 들어갔느냐고 묻는 아주머니에게 조금 민망했지만 사실대로 근처에 다른 숙소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일단 숙소에 잘 들어갔으면 다행이라며 항상 조심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다.

가끔, 아니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상당수 페루 사람들은 정말 오지랖이 넓다. 버스 안에서 처음 본 외국인을 위해서 가방 도둑 맞을까 염려되어서 몇 번을 흔들며 깨워서 주의시키고, 그렇게 잘 왔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내려서까지 쫓아와서 직접 안전한 숙소를 추천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택시까지 잡아서 택시 기사와 직접 이야기해 주고, 숙소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까



와라스칸 산

지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있을까? 이러니 내가 페루에 정을 안 붙일래야 안 붙일 수가 없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페루에도 몇몇 나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간성이 참으로 좋은 나라가 바로 페루다. 그리고 그들은 선의의 의도로 외국인에게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자신들을 경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있는 아저씨는 임신한 아내의 배를 가리키며 나쁜 짓 안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이번과 같이 자식과 함께 있는 아주머니는 자식을 가리키며 자식이 옆에 있는데 나쁜 짓 안 한다고 도리어 외국인을 안심시키기도 한다. 나 같으면 내가 외국인을 도와주려 하는데 그 외국인이 마치 날 이상하게 바라보고 경계한다면 어디 당신 멋대로 해 보라는 식으로 대응할 텐데 말이다. 우리나라보

다 못 사는 나라에서 여행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턱대고 현지인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당장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지인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 상황에 이렇게 오버할 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분명히 정말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현지인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선 먼저 관광객만 우글대는 곳만 선호하지 말고 현지인도 이용하는 버스를 타거나 관광객이 적은 장소에도 가 보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매우 친절하 아주머니 덕택에 와라스 여행은 기분 좋게 시작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몸도 가뿐해지고 머리도 맑아졌다. 점심도 먹고 와라스 광장 주변도 둘러볼 생각에 밖으로 나섰다. 와라스는 3,090미터 높이의 산속에 자리 잡은 고원 도시다. 그럼에도 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6,000미터가 넘는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 대표적인 산은 6,768m의 와스카란(Huascarán)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관광객은 고산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난 이미 예전에 쿠스코나 푸노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멀쩡하던 몸이라서 그런지 특별한 고산병 증세는 없었다.

먼저 와라스 중앙 광장을 살펴보고 투어 회사에 들러서 내일 투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투어 회사에서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보니, 와라스는 리마에서 많은 현지인 친구들과 한인 분들이 추천해 준 곳인 만큼 정말 둘러보고 싶은 곳이 참 많았다. 그 중에서 하루는 몬테레이(Monterey)라는 온천을 찾아가 휴식을 좀 취하고, 다음 날은 우아스카란 국립공원과 그곳에 있는 리안가누코 호수(Lagunas Lianganuco)와 융가이(Yungay)라는 곳을 가



와라스의 몬테레이 온천의 옥외풀장

보기로 했다. 몬테레이는 꼭 투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 볼 수 있는 곳이였기 때문에, 숙소에 들려서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바로 몬테레이로 향했다. 투어 회사 직원의 말처럼 정말 완전 갈색 물의 온천이었다. 설명을 들어 보니 철분을 많이 함유해서 적갈색을 띠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스트레스나 근육통에 좋다고 한다. 계곡에 있는 옥외풀장은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남매로 보이는 현지인 세 명이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재미있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하자 바로 포즈를 취해 주었다.

사진에서 보듯이 물이 정말 적갈색이다. 이러한 옥외온천 외에 카하마르카 온천처럼 개별 욕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 형식은 카하마르카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시설이나 서비스가 확실히 카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에 위치한 리앙가누코 호수

하마르카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물만큼은 카하마르카 못지 않게 온 몸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주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다. 온 몸이 나른해진 상태로 나와서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잠들어 버렸다.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다음 날은 몸이 매우 가벼웠다. 이제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을 갈 차례였다.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전날에 미리 예약해 둔 투어 회사로 나섰다. 그리고 바로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우아스카란 산은 정말 듣던 대로 대단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눈이 가는 모든 곳이 다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자 목적지인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유명한 것은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나무 그리고 세상에 찌든 눈을 정화해 주는 듯한 멋진 빙하호, 리앙가누코 호수다. 게다가 그 호수 뒤로 보이는 만년설에 덮여 있는 우아스카란 산봉우리의 모습은 정말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들었다. 리앙가누코 호수의 색은 정말 말 그대로 영롱한 옥색이었다. 사진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맑고 신비한 옥색이었다. 멋진 산 속에 자리 잡은 옥색의 빙하호, 그 뒤로 보이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봉우리…….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 과거에는 이 호수 위로 빙하가 떠내려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날씨의 영향인지 거의 안 보인다고 한다. 빙하를 보기 위해서는 트래킹을 할 준비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아쉽게도 빙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아쉬움은 한순간에 잊을 정도로 그 순간 내가 보고 있던 경치에 만족했다. 지난번에 쿠스코를 여행할 때 알게 된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던 한국인 친구는 내게 쿠스코보다 와라스가 훨씬 좋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쿠스코는 단지 옛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 탄성을 자아내지만, 와라스는 자연 그대로가 숨을 멎게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때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도 속하는 마추픽추를 다만 옛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친구의 말에 그저 웃음만 나왔지만, 내가 직접 와라스를 보니 그 친구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다. 자연 그대로 형성된 산과 물과 눈이 한데 어우러져 만드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는 정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아름다움이었다.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에서 멋진 경치를 구경하고 그곳에서 파는 초클로 옥수수를 사먹었다. 딱딱딱한 초클로에 치즈를 얹어서 먹으니 어찌나 맛있던지 세 개나 먹었다. 그곳에서 먹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초클로와 치즈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버스를 타고 융가이로 향했다. 융가이는 우아스카란 산기



와라스의 옛날 융가이 마을 모습. 현재는 위령공원

숲에 있는 마을로서, 1970년 5월 발생한 대지진 때 산사태가 발생해 2만여 명의 주민이 파묻힌 마을이다. 오늘날 그곳은 위령공원으로 꾸며져 있고,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융가이 마을을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융가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조금 전에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에서 보았던 만년설로 뒤덮인 우아스카란 산봉우리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곳에 무슨 마을이 있었다는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지 풀과 나무, 교회와 납골당을 포함한 몇몇 건물만이 덩그러니 있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깊숙한 곳에 1970년 당시 산사태 속에 파묻힌 희생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투어 팀과 함께 위령공원으로 변한 옛날의 융가이 마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현지인 할아버

지 한 분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이곳에 살았는데 산사태 속에서도 극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자신 외의 모든 가족은 죽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너무 단순한 의문일지 모르지만, 이 마을이 산사태로 인해 엄청난 참사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사람들이 왜 피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산과 마을의 거리는 꽤 있고, 사람들이 일찍 눈치를 챘더라면 재산피해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는 순간 의문은 바로 해결되었다. 당시 어느 정도의 산사태는 종종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산봉우리의 눈이 흙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려온 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통 산 중턱에서 나무나 그 외의 장애요소 때문에 멈췄다고 한다. 그래서 1970년 5월 그 때에도 사람들은 산사태의 징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산사태 속에 파묻히는 순간까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눈치를 늦게 챈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눈과 흙과 나무들이 몰려 내려오는 속도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단다. 후에 추정하기로는 경사진 산 비탈길이 아닌, 다소 평평한 마을로 진입했을 때의 속도도 자그마치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늦게나마 눈치를 챘어도 도저히 피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눈앞에 몰려오는 거대한 눈과 흙, 그리고 나무들이 미칠 듯이 뛰어가는 사람들을 집어 삼키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관련 사진



와라스의 옛날 융가이 마을 모습. 현재는 위령공원. 당시 산사태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보인다.

을 보여 주던 할아버지는 어이없게도 팁을 요구했다. 물론 가이드의 역할을 하신 셸이니 팁을 줄 수도 있었다. 나는 주위의 눈치를 보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팁을 줬다. 내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 봐서, 세상물정을 잘 모른 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가족들 전부를 몰살시킨 그때 그 사건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다. 그것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대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팁을 요구하는 모습은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싫었다. 물론 당시의 산사태로 가족과 재산 모두를 잃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법 외에는 살 방도가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해도 할아버지의 모습은 안타까움보다는 답답함과 더불



와라스의 옛날 용가이 마을 모습. 현재는 위령공원. 당시 산사태로 인해 현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버스의 모습

어 화까지 나게 했다.

오늘날 위령공원으로 변한 용가이 마을의 옛 모습에서 용가이의 과거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예전에는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버스도 다녔다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중에서도 산사태 당시 그대로 산사태 속에 파묻혔던 버스의 모습은 정말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흙과 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덮쳤기에 저 고철덩어리 버스가 구겨진 종이처럼 완전히 찌그러지게 된 것인지…….

산사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는 단지 흙, 눈, 나무 등이 마구 몰려오는 정도만 떠올릴 수 있을 뿐, 이렇듯 버스가 박살이 날 정도의 속도와 힘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단지 자연의 힘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만 계속해서 머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납골당으로 향했다. 하얀 예수님 상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납골당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명복을 비는 글귀가 적힌 작은 직사각형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얼마 전에 가족들이 다녀간 흔적도 있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바라보니 가슴 한 쪽이 너무나 시리고 아팠다. 많은 관광객들은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는 그들을 바라보는데, 웬지 모를 울화통이 터져 나왔다. 아무리 우리가 단지 이곳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마을 전체가 파묻혀져서 만들어진 위령공원의 납골당에서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는 행위는 좀 자제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투어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의 특이한 풀들을 바라보았다. 페루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희한하게 생긴 검은색 풀이었다. 페루의 웬만한 도시는 다 가 보았건만 정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풀이었다. 검은 빛깔의 풀. 괜히 등골이 오싹해졌다.

융가이에서 나와 와라스 중앙 광장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내내 버스 안에서 나는 융가이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비극이었지만, 정말 진심

으로 그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돌아갔다.

중앙 광장 근처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이제 페루 북부 여행을 마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리마로 돌아가는 표를 끊고 잠시 버스터미널에 앉아서 길고도 짧은 페루 북부 여행을 회상해 보았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페루라는 나라를 느껴 보고자 했던 나의 이번 여행 목표가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는 굳이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스스로 알아서 깨닫게 될 테니 말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못 느끼고를 떠나서 정말 다양한 삶의 양상과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똑같은 루트로 여행하게 된다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괜한 아쉬움에 뒤를 돌아보며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언젠가 페루 북부를 다시 여행하게 된다면, 이번에 부득이하게 못 가 보았던 아마존 강이 흐르는 열대우림 지역을 꼭 가보리라 다짐하면서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난 리마에 있겠지. 그래도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